

## 문화 도시로서의 도쿄

### 시이나 링고 음악가

권위 있는 로잔 발레콩쿠르를 비롯, 원래 구미가 본고장인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최근 일본의 젊은 재원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용/연주에 있어서 일본인의 뛰어난 실력에 세계는 벌써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나는 「풍부한 교육을 받은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 할 수 있는 도시·도쿄」를 마음에 그립니다. 해외 유명무용단 혹은 악단의 수석주자로 선택되는 인생외에 어릴 때부터의 피나는 연습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부야 교차점을 타임즈 스퀘어화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도쿄는 세계에 자랑할 인재로 흘러넘쳐 돌아가고 있으니깐 말이죠.



## TOKYO AS SEEN BY ARTISTS

아티스트가 본 도쿄

98년 데뷔.04-12년 락밴드 도쿄지현의 활동도 병행.영화, 무대 음악제작을 비롯, 여러 아티스트에게 곡 제공, 편곡과 프로듀스 담당.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음악상을 비롯하여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 신인상 수상.

## 100년 후에도 전하고 싶은 「환대」의 마음

### 요코이 코엔 화도가

조모, 어머니처럼 소우게쓰류 화도가의 집안 출신. 무사시노 미대졸. 노(能) 무대나 영화 연출 작업, 2007년 세계 플라워 아티스트 27명에 선택되었다. 도내를 중심으로 꽃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는 훌륭한 사계절이 있어 꽃이나 식물을 찬미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문화와 풍습에 스며들어 지금껏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부 말기, 에도를 방문한 영국인 상인 로버트 포춘은 말했습니다. 「일본의 국민성 중 가장 명확한 특징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꽃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푸른 소나무에 자손 대대 번영을 기원하며 등자나무를 장식합니다. 푸른 소나무의 장식은 낙엽을 알기 때문에 태어난 문화죠. 골목의 구석구석 식물을 보고 즐기는 모습은 외국인에게 놀라움일 것입니다.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지금도 집안 곳곳에 공간을 활용해서 화분이나 꽃꽂이를 즐기는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국민성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쿄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므로, 우리도 꽃들이나 식물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막부 말기부터 계승해져 온 풍습을 100년 후에도 전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